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안전보건협의체·안전교육 진행

김상준기자 | 승인 2026.02.26 17:52 | 11면



▲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에서는 지난 25일 관내 공사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 도급사업 안전보건 협의체 및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지사장 이주헌)에서는 지난 25일 관내에서 추진 중인 고품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과 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14개 지구 공사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안전보건협의체에는 공사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 등 현장 관계자 약 30명이 참여했으며, ▲작업장 간 비상연락망 구축 ▲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 시 대피 방법 ▲고위험 공종 작업 시 위험성평가 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2026년 2월 계약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에서는 ▲2026년 안전관리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공유 ▲해빙기 관련 주의사항 및 점검 사항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교육 등을 실시해 현장의 실질적인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이주헌 합천지사장은 "안전관리 핵심 항목 준수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현장 관계자들에게 근로자의 생명보호와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리자의 현장 참여를 대폭 확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해 형식적인 관리를 넘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더욱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는데 지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는 '스마트 장비 확대'와 '재해예방 기술지도 작동성 강화' 등 12대 안전관리 실행계획을 수립해 건설현장 사고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준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준기자